

世界第4位를 堅持한 台灣의 시멘트輸出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65. July. 1)에서 轉載

1964年度에 있어서 台灣의 시멘트輸出은 越南의 시멘트工場新設과 馬來의 시멘트工業擴張으로 因하여 많은 苦痛을 입었다. 이 두나라는 여태까지 台灣의 重要한 시멘트輸出市場이었던 것이다.

1964年度の 輸出量은 約 90万吨으로서 이는 1963년에 船積된 982,036吨 보다 오히려 低下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台灣이 世界 第4位の 시멘트輸出國의 位置를 그대로 維持하는 데는 充分한 것이다. 다만 日本, 白耳義, 仏蘭西가 台灣을 앞서고 있을 뿐이다.

台灣의 10個主要工場의 年間시멘트生産能力은 300万吨이다. 1964년에 이 工場들로 부터 234万吨이 生産되었으며 總7,000吨이 前年(1963年)에 比하여 減少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에 比해서는 57万吨이 增加되었다. 1965年度の 計劃生産量은 250万吨인데 그 中の 88万吨은 台灣의 4大시멘트 会社인 台灣水泥, 嘉新水泥, 亞州水泥, 環球水泥의 協約에 依하여 輸出될 豫定이다. 그러나 現在 馬來도 시멘트를 過剩生産하고 있으며 馬來自体도 그의 輸出市場을 模索하고 있다. 그리고 越南도 그의 國內 需要를 充當하기 爲하여 生産을 開始하였다. 台灣의 시멘트製造業者들은 새로운 顧客을 부지런히 찾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크웨이트」까지 遠距離市場도 開拓코자 하는 것이다.

1965년에는 計劃輸出量 88万吨과 生産量 250万吨中에서의

計劃輸出量 88万吨을 除外한 나머지는 새로운 國內住宅 및 建設事業에 依하여 吸取되기를 期待하고 있다.

台灣시멘트工業의 擴張은 1964年以來 急速히 遂行되었다. 1945年에는 다만 2個의 荒廢한 Mill이 있었고 하나의 未完成工場이 있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美國援助資金이 시멘트工場의 復旧와 新設을 뒷받침하였으나 그 後에는 民間投資에 依하여 成功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現在는 시멘트工業이 民間企業체에 依하여 움직여 지고 있다.

最初의 시멘트輸出은 1948년에 37,000噸을 輸出하고 50萬弗을 獲得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1964年の 輸出에 依해서는 總 1,100萬弗의 外貨를 獲得하였던 것이다.